

“국정원 매국 쿠데타” “공개절차 위법 아냐”

국회 정보위 여야 남북정상 회의록 공개 놓고 난타전

여야는 25일 97일 만에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와 회의록 내용의 해석을 놓고 격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그동안 파행의 배경이 됐던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들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또 정보위 여당 간사로 조원진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도 처리했

다. 이어 정보위원들은 국정원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절차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제2의 국가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당은 남 원장에 대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절차가 위법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남 원장은 “당연히 합법”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또 민주당이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의 조작 여부를 의심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만 찬성하면 경기 성남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볼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새누리당 조병철 의원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대통령기록물)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며 “만약 그게 의심되면 (국정원본과 대통령기록관본을) 대조해 볼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야당 정보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남 원장을 강하게 추궁했다. 주미에 의원은 남 원장에게 “어떻게 국정원장 스스로 특수기밀을 유출할 수 있는가”고 물었고 이에 남 원장은 “야당이 자꾸 공격하고 왜곡하기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답했다. 이에 추 의원은 “국정원의 명예가 국가이익과 국가기밀보다 더 중요하냐”고 남 원장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원장은 또 “대화록에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있느냐”는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는 “답변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제1의 국가문란 사건을 덮기 위해 제2의 국가문란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범죄 과정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남 원장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원세훈 전 원장 때는 선거개입으로 ‘매국 쿠데타’를, 남재준 체제에서는 국익을 팔아먹는 ‘매국 쿠데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정원 회의록 공개 물타기 정치공작”

광주 시민단체·정치권 규탄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연루된 국가정보원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발언이 담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공개한 데 대해 광주지역 통일 단체와 진보정당들이 일제히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는 25일 새누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NLL발언 발췌본’ 공개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또 하나의 정치공작”이라고 규탄했다.

진보정의당 광주시당(준)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선·정치개입 등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국정원은 자숙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이는 더 이상 법이 보장한 중립적인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가의 근간인 법치의 원칙과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광주·전남·전북지방의원단도 이날 “국정원은 불법 대선 개입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초유의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고 비난했다.

한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지역 시민사회,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과 함께 26일 광주 YMCA무진관에서 ‘국정원 헌정유린 규탄, 광주시민 시국대회 및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5일 광주 북구 새누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통합진보당 광주·전남·전북 지방의원단이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 뒤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회의록 해석 입장차 극명

새누리당과 참여정부 인사들은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해석을 놓고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25일 NLL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전환하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영토 포기’ 발언으로 규정하고, 공개에 반대했던 민주당의 지의가 드러났으며 공세를 취했다. 그러나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왜곡 공세를 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발췌본을 조작이라 규정하고 뭐가 두려운지 문서 자체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국민의 평가이다. 역사적 진실을 덮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전제적인 맥락으로 볼 때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해석도 제기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발췌본은 짜깁기식

새누리 “盧, 서해평화지대 전환 영토포기 아냐” 참여정부 인사들 “NLL 포기 발언 어디에도 없다”

칠게 반박했다.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발췌본에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은 없고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이 평화경제지대로 해결하자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불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발췌본은 짜깁기식

날조·왜곡”이라며 “‘맞습니다’ ‘좋습니다’ 등 노 전 대통령 특유의 표현을 마치 김 위원장 제안을 수용한 것처럼 편집한 것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정상회담 당시 공식수행원이었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에서 “NLL 포기 발언은 전혀 없었고, 노 전 대통령이 저자세로 회의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이낙연, 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법안 발의

대형마트에서 부담금을 받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쓰고, 담배 등 일부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규모 점포 또는 준 대규모 점포로부터 순수익의 5% 이내 범위에서 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을 받아 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지역 유통산업 종사자와 시설기반 조성에 쓰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담배 등 소규모 점



포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합한 일부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점포는 3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거대한 자본력 앞에 극심한 고통을 겪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들이 최근 일부 대형마트와 상생의 길을 찾고 있다”며 “이 같은 상생노력을 법적으로 지원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성곤, 국적상실 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법률 통과

한국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통과로 6·25나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들 가운데 이민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장 대상심의위원회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의 숙원이 마침내 해결됐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대통령, 中 3인방 연쇄회동

시진핑·리커창·장덕장 만나...이정현 수석 등 수형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나흘간의 방중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비롯해 제2인자인 리커창(李克強) 총리, 장덕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핵심 3인방과 연쇄회동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5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박 대통령 방중 세부일정을 발표했다.

주 수석은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라며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수교 이후 20년간 이룩한 양국관계의 비약적 발전의 기초 위에서 향후 20년 이상 한중 관계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

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27일 베이징(北京)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등을 주제로 회담한다. 이어 박 대통령은 28일 리 총리와 장 상무위원장과 연쇄회동을 하고 한중 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 교류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의 방중 공식 수행원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윤상직 산업부 장관, 권영세 주중대사,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이정현 홍보수석, 조원동 경제수석,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형진 외교비서관, 최종현 외교부 의전장,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 등 10명으로 확정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OPEN

3.3㎡ 당 임대료 20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2013년 10월 1일 OPEN

3.3㎡ 당 임대료 200만원
지하 수영장 3.3㎡ 당 80만원
볼링장, 골프장 3.3㎡ 당 150만원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